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폐지 모아 2억 기부한 할머니, 4천만원 또 기부



폐지로 번 2억원 기부한 할머니

“어릴 때 배움의 기회 놓쳐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고향 아이들 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폐지와 깡통을 주워 모은 돈 2억3650만원을 고향 학생들을 위해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의 박순덕 할머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향에 총 1억9650만원을 기탁해 지난해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할머니는 이달 또다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4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하루 최대 6만원이 박 할머니가 폐지·깡통을 주우며 번 돈이다. 할머니가 기탁한 장학금으로 정읍 칠보면에 사는 학생 168명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배우 하정우 아냐”... 초대 ‘AI 수석’ 하정우



대통령의 선택 받은 광주시사관학교 교수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신설한 ‘시미래기획수석’에 광주시사관학교 교장인 하정우 박사를 임명했다. 업계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AI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의 개발을 주도했다. AI 윤리·공공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 AI 관련 강연만 800회 이상을 기록했다. 네이버 재직 시절부터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와 함께하며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힘써 온 하 수석은 올해 6기 교장으로 교육을 총괄하며 지역과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던 중이었다. 앞으로는 국정 최전선에서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신설한 ‘시미래기획수석’에 광주시사관학교 교장인 하정우 박사를 임명했다. 업계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AI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의 개발을 주도했다. AI 윤리·공공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 AI 관련 강연만 800회 이상을 기록했다. 네이버 재직 시절부터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와 함께하며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힘써 온 하 수석은 올해 6기 교장으로 교육을 총괄하며 지역과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던 중이었다. 앞으로는 국정 최전선에서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설계할 예정이다.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소금파 vs 설탕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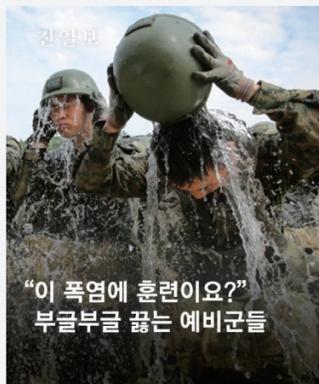


이건 네번째 레슨! 콩국수에 설탕 넣기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별미 논쟁 1순위 ‘콩국수 간’이다. 이 단순한 질문이 전국민의 입맛을 가른다. 수도권과 영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금을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금 70%, 설탕 30%의 응답이 돌아왔다. 해당 지역에서는 “설탕 넣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지역 기본 간 자체가 소금과 설탕을 함께 쓰는 호남에서는 대부분 가게에 설탕통이 비치돼 있다. ‘콩국수’ 아닌 ‘콩물국수’라 부르기도 하며 “달달함 한 손갈 넣어야 진한맛이 산다”고 말한다. 과거 설탕은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조선 후기부터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다. 광주에는 설탕물에 말아먹는 ‘설탕국수’도 존재할 정도다.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별미 논쟁 1순위 ‘콩국수 간’이다. 이 단순한 질문이 전국민의 입맛을 가른다. 수도권과 영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금을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금 70%, 설탕 30%의 응답이 돌아왔다. 해당 지역에서는 “설탕 넣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지역 기본 간 자체가 소금과 설탕을 함께 쓰는 호남에서는 대부분 가게에 설탕통이 비치돼 있다. ‘콩국수’ 아닌 ‘콩물국수’라 부르기도 하며 “달달함 한 손갈 넣어야 진한맛이 산다”고 말한다. 과거 설탕은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조선 후기부터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다. 광주에는 설탕물에 말아먹는 ‘설탕국수’도 존재할 정도다.

폭염 속 예비군 동원훈련, 실내 교육했지만...



“이 폭염에 훈련이요?” 부글부글 끓는 예비군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에서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예비군 동원훈련이 시작됐다. 땀이 줄줄 흐르는 땀별 아래 방탄모를 쓰고 훈련에 나선 예비군들은 “현역 때도 이 날씨에 훈련 안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나주·광산훈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이 모였다. 이날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체감온도는 38도에 육박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과 야외활동 자제”를 경고했지만, 훈련은 정해진 일정 그대로 진행됐다. 야외 사격 외 모든 교육은 실내로 전환됐고, 군의관 상시대기 및 얼음물 지급 등 대응책이 마련됐다. ‘폭염 예비군 논란’은 10년 넘게 반복 중이다. ‘6~8월 훈련 제외 기간 확대’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에서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예비군 동원훈련이 시작됐다. 땀이 줄줄 흐르는 땀별 아래 방탄모를 쓰고 훈련에 나선 예비군들은 “현역 때도 이 날씨에 훈련 안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나주·광산훈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이 모였다. 이날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체감온도는 38도에 육박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과 야외활동 자제”를 경고했지만, 훈련은 정해진 일정 그대로 진행됐다. 야외 사격 외 모든 교육은 실내로 전환됐고, 군의관 상시대기 및 얼음물 지급 등 대응책이 마련됐다. ‘폭염 예비군 논란’은 10년 넘게 반복 중이다. ‘6~8월 훈련 제외 기간 확대’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302 주황색과 자연

태양광선 풍부한 지역에서 난색 선호

● 색채와 곤충 그리고 동물

헤스(Hess)는 물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했는데, 초록이 물고기들의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고, 그다음의 색으로는 파랑과 노랑 그리고 주황 순서이며, 빨간색이 가장 어둡게 보인다.

뉴탈(Nuttall, G. H.)은 쉬프리(Shiple, A. E.)와 함께 학질모기를 연구했는데, 유럽에 흔히 있는 학질모기는 짙은 파랑색과 빨간색 그리고 갈색에 가장 많이 끌고, 노란색이나 주황색, 하얀색에 가장 적게 끌었다.

미군은 이 보고서에 따라 학질이 흔한 지역에서 정복을 포기하고, 밝은색 옷으로 대치했다.

거북이가 색 지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색으로는 주황과 초록 그리고 보라가 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주황색처럼 보인다.

와그너(Wagner)는 도마뱀을 연구했는데, 도마뱀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연한 파랑, 짙은 파랑, 보라를 구분하였다.

● 색과 자연계

퍼거슨(Fergusson, James)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진흙으로 만들어 상형 문자가 새겨진 원통형 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하였다. 이 사원의 각 층은 7개의 흑성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층은 각 흑성의 색으로 장식되었고, 풍부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주황으로 된 2층은 목성의 색이다.

태양 빛은 지역에 따라 조도가 다르므로 아름답게 보이는 색도 각각 다르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지방의 태양 빛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띤다. 적도 근처의 나라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난색이 예쁘게 보이므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빨간색을 인지하는 빨간 시세포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태양광선의 지속시간과 각도에 의해서 색채 기호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이다. 사람들은 지역의 일광 양에 따라 색채 선호가 달라진다. 햇빛이 잘 쬐는 지역에서는 선명하고 화사한 색채를 즐기며, 주로 난색 계열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북위지방과 남위지방에 관계없이 태양광선이 풍부하면 난색 계열의 색채를 좋아한다.

태양광선의 시간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비렌(Birren)과 헤프너(Helner)가 있다. 색채 기호는 천후(天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비렌, 국민과 환경 및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볼드윈(Baldwin)과 니벨(Niebel), ‘지역 설’을 신봉하는 윌슨(Wilson)이 속한다.

초원지(코카서스 지방)에서는 약간 맑은 중간색으로 노랑, 주황, 초록, 하양이 나타난다. 모래 지역(아라비아, 몽고, 이집트)에서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노랑, 빨강, 주황이 나타난다.

주황빛은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하므로 일할 의욕이 생긴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